

##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

성경말씀: 뵤전3:8-17

한국이든 미국이든 오순절/은사주의가 맹위를 떨친다. 핵심: 큰돈 현금하고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충성하면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 과연 그럴까?

나 역시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을 충만히 받기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구약은 땅의 백성, 땅의 복, 신약은 하늘의 백성, 하늘의 복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저주로 보았다. 모세 오경 등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다만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만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다. 누구 하나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가 이 시간 땅의 복도 받기를 원하신다.

특히 지금처럼 순교 당하는 때가 아닌 때에는 더더욱 땅의 복도 받으면 좋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끔씩 땅의 복을 누리려 비결이 나와 있다. 오늘 읽은 뵤전3장이 그중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복을 주시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는 돈/재물 등을 가지고 와서 복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이 비결을 잘 따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9-11절 읽기,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 교회 안에서(8)

성경대로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딤후3:12).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경, 한 교리에서 나온다.

형제로서 사랑하고 동정하라.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한다. 말을 놓지 말라

### 불신자들에게(9)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마5:43-48).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신다.

샘 존스 목사 집회, 노름꾼의 간증,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 아내의 권유에도 듣지 않음.

다른 노름꾼과 함께 11시에 노름판에서 나옴. 커피가 먹고 싶다. “내 아내가 끊여 줄 것이다.”

“어떻게 천사 같은 부인이 마귀 같은 내 친구와 삽니까?”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 남편은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라도 제가 행복하게 해 주어야지요.”

남편의 회개

이렇게 하면 영원한 복을 상복 받는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다.

베드로전서의 실제적 교훈: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시켜야 한다(3:1).

### 행복한 삶을 살려면(10-11)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비결: 엡6:1-3

뵤전3:10-11은 일반적인 규칙을 말함, 이것은 원래 다윗의 시편(34:11-16)

삼상16장,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임, “천천, 만만”, 이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함. 가장 가까운

사울에게서 핍박이 들어옴, 왕의 사위가 됨, 그의 딸과 아들이 다윗을 보호함,

삼상21:10-15,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감, 아기스(이름), 아베멜렉(호칭),

살아남기 위해 미친 채 하면서 경멸의 대상이 됨. 이 정도로 성도가 핍박받는 경우가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은 교훈을 주려고 이 시편을 기록하였고 베드로는 로마의 압제 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즉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라라.

34:11, 왕이 된 이후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려 함.

다윗의 삶의 특징: 주를 두려워하는 것, 베드로도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다.

12절,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나쁜 것이 아니다.

13-14절은 벤전 10-12와 같다.

1. 혀를 조심해야 한다(10, 약3:2, 5-12, 잠18:21).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다툼이 많은 경우 혀로 인해 생긴다.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시31:20). 다윗의 시
2.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10), 특히 목사들은 조심해야 한다. 숫자를 늘리거나 거짓 보고 No!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리라고 다짐하라(엡4:15).
3.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11). 청년들이 음행/주초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시25:7). 나무와 못
4. 모두의 유익을 위해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11, 롬12:18). 심지어 부부의 갈등(고전7:13-15)
5.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내려다보신다(12). 여기의 의인은 의롭게 사는 자를 뜻한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있다(약4:4). 행복하게 장수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
6.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12). 응답 받는 기도의 핵심: 의롭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7.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12). 이것을 기억하고 피하라.
8. 그렇게 살면 불신자들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13). 바울이나 다니엘 등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다.
9.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며 말씀을 전하면 돌아서는 이들이 많다.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14). 약5:11의 위로, 히13:6, 이런 경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후1:3-5).
10.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분하라(15).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주인 대접하라.
11. 소망의 이유를 답하기 위해 예비하라. “예수만 진리냐? 종교는 다 같지 않냐? 킹제임스 성경, 침례 등의 좁은 길을 가느냐? 너만 잘 믿느냐?” 성경대로 답하여야 한다.
  - a. 우리의 상태(죄와 죄들), 번민과 고민, 양심의 찢림
  - b. 내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
  - c.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창조자만 해결하신다.
  - d. 사람이 되어 오셨다. 복음, 단번 속죄
  - e.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저저 영원히 얻는다.
  - f.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과 휴거에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 g. 복음의 언어인 침례를 행한다.
  - h.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 i.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신다.
12. 이 모든 대답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 a. 베드로는 구원받은 이후의 선한 행위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 결론

하나님은 국가의 제도적 핍박이 없는 평화의 때에 보편적인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목사로서 나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떨리하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말조심, 행동 조심, 하나님 대접하기, 온유하게 대답 예비

이런 보편적인 법칙의 준수를 통해 땅에서의 행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